한울농원을 애용해 주신 고객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울영농조합을 애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유난히 춥고 어려웠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2011년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올해는 유난히 다른 해와 달리 추웠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흘러 벌써 우리의 마음을 녹혀 줄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무엇인가 소득이 될 만한 작물을 심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겠는데 무엇을 해야 하면 좋을지 꽤나 신경이 쓰이지요.
1984년부터 농사를 지어오면서 이것 저것 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였지만 결과는 대부분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은 생산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아쉬움이 항상 남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올리는 일은 더욱 중요하지요. 좋은 결과는 당연히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이겠지요. 걱정 없이 노후를 즐겨가면서 살 수 있는 일을 저희 한울과 함께 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여생은 매우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입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을 남보다 먼저 찾아 증식하는 일이고 그 작물의 재배기술을 빨리 익히는 것이며, 그것을 심은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일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오디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한울을 애용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해 더욱 복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1일　　천 상 배 드림

경북 상주시 만산동 307-1　영농조합법인 한울뽕나무　054-536-3324~5
www.hanwool.co.kr

이 자료는 저희 농원에서 묘목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에게 드리는 자료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께 오디자료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시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정도의 오디관련 자료)

□ 앞으로 권장할 만한 작목을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작물을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오디를 식재하여 소득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작물은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 그것을 먹으면 좋다고 인정된 것이 오디이고,
농약을 가능한 한 적게 살포한 농산물을 좋아하고,
또한 맛이 있어 대중적인 소비가 일어나야 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 있어 그 제품이 다양하게 소비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여러 우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초기 생산제품이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 다른 것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많아야 하고,
한 번 심어 놓으면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재배가 쉬워야 하고,
자연적인 재해가 없는 작물이어야 하고, 등등 이런 조건을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오디는 그 해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오디를 재배하면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가?

○ 노약자나 부녀자도 재배가 가능하다.
○ 생산량이 무척 많다.(1,000~2,000kg/300평)
○ 생육이 가장 활발한 나무이다(뽕나무가 어떤 나무보다도 잘 자란다). .
○ 한 번 식재로 오랫동안 수확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
○ 자식에게까지 저절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다.
○ 태풍이나 장마 등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 오디 생산을 항상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뽕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심은 조건이 나빠도 잘 자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물이 없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물이 빠지지 않아 나무가 잘 못자라는 경우도 많다.
○ 전지를 잘 하지 않아 나무끼리 겹쳐진 경우가 많다.
○ 오디재배에 맞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 병충해 방제를 잘하여야 한다.
○ 오디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불어 오디가 잘 생산이 될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 고라니가 잎을 뜯어 먹어도 손도 안 쓰고 고라니만 탓한다.
○ 오디를 잘 재배하려면 그 특성을 이해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오디의 상품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 오디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한 토양관리

○ 심은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든다.
○ 비가 많이 와도 금방 물이 다 스며들어 물빠짐이 잘 되어야 한다.
○ 유기물이 많고 통기성이 좋은 곳이 좋다.
○ 항상 적당한 수분이 있는 곳이 좋다.

□ 오디를 많이 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 해결책 한 가지는 무엇인가?

○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일이 오디 재배의 핵심이다.
위의 사항만 잘 실행할 수 있으면 대부분 오디재배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뽕나무에서 오디를 따는 것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것과 다를 게 없고,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따는 일과 다름이 없다. 열매를 수확하는 일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영양분이 너무 많아 잘 자라도록 하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양분이 극도로 모자라면 꽃만 잔뜩 오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정도를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요소인데 영양분이 많으면 잎은 무성한데 꽃이 잘 안 피고, 결실이 잘 되지 않고 또한 비대도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디는 무엇 때문에 무조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당연히 물어올 텐데 그 답은 다음과 같다.
잎과 꽃이 한 곳에 함께 피어 (잎과 꽃이 같이 있음: 이런 작물을 거의 없음)잎이 날 수 있는 곳에서는 오디도 함께 달려 영양상태가 좋을수록 나무가 많이 자라 가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자라면서 꽃눈이 만들어 지는데 다른 작물과 달라 빨리 자라고 많이 자라도 오디의 결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만약 한울 2호는 암나무로 잎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 열매가 달리게 된다.

○ 오디의 수확량은 바로 나무를 얼마나 키웠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올해 잎이 날 수 있는 눈은 꽃도 함께 피어 오디가 달리므로 잎이 나는 곳이 몇 군데인가가 그 나무의 수확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잎눈과 꽃눈이 함께 붙어 있는 나무는 거의 없다. 사과가 군데군데 달리지 않고 사과잎이 있는 곳마다 사과가 달려 있다는 것과 같다(물론 사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오디의 잎이 날 수 있는 곳이 500곳 이라면 500곳에서 오디가 달리고, 1,000곳이라면 1,000곳에서 오디가 달린다는 이야기이다. 뽕잎이 나올 수 있는 곳이 100곳이라면 오디도 100곳에서 따는 것이고 생육이 좋아 500장의 있다면 100장 잎을 따는 것에 비해 수확량이 5배 늘어난 것이다. (오디재배의 핵심기술)
눈 한 개에는 잎은 한 장씩 나고 오디는 4~7개 또는 그 이상도 되므로 평균 5개씩 오

디가 달린다면 눈이 100개 이면 500개의 오디가 수확이 되는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나무가 잘 자라도록만 하면 오디 재배는 승부가 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오디재배의 관건은 얼마만큼 빨리 잘 키웠느냐가 승부수이다.

○ 밤이고 낮이고 잘 자라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심는 곳의 땅이 영양분이 100이 있다면 100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만약 50이 있다면 50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극히 적은 양분이 있는 개간지나 척박지는 양분이 10이 있을 수도 있다. 척박한 곳이든 양분이 많이 있든 퇴비를 많이 뿌려주고 재배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 소나, 돼지를 비육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것과 물을 먹도록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일이다.
뽕나무를 잘 키우는 것도 이와 같으므로 뽕나무 뿌리에서 질소, 인산, 칼리를 비롯한 영양분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다. 영양분이 많을수록 빨리 자라므로 그에 맞는 관리를 해주는 일이 관리자의 몫이다.

○ 그렇다면 영양분을 얼마나 자주 주면 되는가?
매일 매일 줄 수는 없지만 매일 양분을 섭취하므로 가능하면 자주 주는 것이 좋다.
심기 전에 퇴비를 많이 주는 것이 좋고 심은 후에 나무주변을 비롯한 토양전면에 깔아주는 것이 좋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자주 해 줄수록 좋다.
화학비료도 최소한 월 2회 이상은 주는 것이 좋다. 잎이 나기 전에 한번 그리고 생육 중에 월 2회 이상 준다. 10월 말까지 자라므로 8월말까지 주어도 된다(생육상태에 따라 더 늦게 까지 주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추운 곳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하여 물에 영양분을 타서 준다면 아무리 땅이 나쁜 곳도 재배가 가능하다.
수경재배라하여 물에 비료를 타서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뽕나무는 흙에서 수경재배처럼 키우면 빨리 잘 키울 수 있다. 그 기본은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곳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서 퇴비도 살포하고, 복합비료도 가끔씩 주고 더 많이 자라게 한다든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물을 줄때 비료를 타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잘 키울 수 있다.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뽕나무 잘 기르는 방법, 상품성이 높은 오디를 만드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농사를 짓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항상 성공한다.

○ 오디를 생산하던 사과를 재배하던 항상 일등 농사를 짓는다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부러울 것이 있겠는가? 명예를 탐한다면 명예가 있는 곳에 가야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인데 사과농사, 오디농사 일등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가장 부러운 것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으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늙어서도 건강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작은 돈이지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덜 자랄 것이고, 물이 모자라면 또한 덜 자라고 상품성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생산을 잘 못하는 것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 뽕나무의 결실특성은 무엇인가?

○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잎과 꽃이 함께 피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렇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열매를 수확하는 작물은 양분을 너무 많이 주어 잘 자라게 하면 오히려 열매가 달리지 않고 또한 잘 자라지 않은 뿐만 아니라 잘 익지도 않는다.

○ 도장지가 없는 나무이다.
먹을 것이 충분하여 잘 자라서 새로운 가지가 많이 만들어지면 다음해에는 어김없이 마디마디 열매가 달리는 것은 오디이외에는 없다. 배나무 기르는 곳에 가면 수많은 일년생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잘라주게 되는데 만약 뽕나무라면 그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가지를 길게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오디 재배의 핵심기술이다. 그 핵심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단 실천하고 안하고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 오디의 상품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디는 수분이 많고 더운 때에 수확이 되므로 금방 물러지고 곰팡이가 빨리 피게 되어 유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디와 같이 복분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오디 수확 후 관리기술 및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에 기획과제를 내어 놓았다. 오디의 저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유통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양한 가공제품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 생육환경이 좋아야만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수확기에 수분이 부족하여 오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오디표면으로부터 수분이 증발하여 윤기가 없고 힘이 없는 상태의 오디는 가치가 별로 없고 몇 시간만 지나면 흐물거려 내용량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생과로서 유통이 불가하다.

○ 적당한 수분의 보급이 오디를 단단하고, 윤기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준다.

○ 생과든 냉동과 든 상품이 좋은 상태에서 판매가 된다.

○ 생과로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당일 수확한 것을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겨 온도를 낮추어주는 것이 좋다.

○ 냉동도 마찬가지로 수확 직 후 가능하면 빨리 급속 냉동하는 것이 좋다.

○ 좁게 심은 상태에서 전년도 수확 후에 전지를 하지 않아 겹쳐진 경우는 상품이 될 수 없다.

○ 병충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뽕나무의 전지는 어떻게 하는가?

○ 한울 2호, 수원뽕

열매 달리는 특성을 잘 고려하여 그에 맞는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한울2호나 수원뽕은 밀식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3m x 1.5m 로 심는데
그대로 계속 키우게 되면 2~3년만 지나면 나무가 붙게 된다.
뽕나무는 어떤 곳에서도 오디가 달리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만들어 주면 된다.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심어서 6월경이 되면 자라는 두 가지를 60cm 정도의 높이에서 자른다.
② 한 가지에서 두~3개의 가지를 만들어 키운다.
③ 다음해 봄에 생육이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 위해 전년도에 자란 새로운 가지를 잘라주면 다시 가지가 나오게 된다. 여름까지 기르면 다시 많이 자랄 수 있다. 다시 6월말이나 7월 초에 잘라 가을까지 그대로 키운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로운 햇가지에 매년 오디가 달리므로 가지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④ 첫해 많이 자라지 않은 것들은 대체로 다음해 봄에 잘라 가지를 두 번 만들어 주면 3년째에는 많이 수확할 수 있다.
⑤ 매년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가지를 잘라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 준다.
⑥ 한울 2호나 수원뽕은 이렇게 매년 수확하기 전에는 가지를 가능하면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수확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수확 직 후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나무가 붙어 정상적인 수확과 생육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지를 잘라 주어야 한다.
⑦ 뽕나무를 심어서 가지를 처음에 두 가지만 길러 다시 자르면 2~3가지가 만들어지면 첫해에 4~6 가지가 만들어 진다. 다음해 봄에 잘라 다시 1줄기에서 2개씩 만들고 다시 여름에 한 번 더 잘라주면 된다. 매년 수확 후에 가지를 잘라 주는 것이다.

○ 청일뽕

① 청일뽕은 키우면서 전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가지를 만들어 주어야 열매가 달리게 된다. 그 3년에 많이 자라므로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② 청일뽕을 매년 잘라주게 되면 열매 달리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게 되므로 무조건 잘라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키우려면 어느 정도의 수형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도의 전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대로 방임하여도 된다. 충분한 거리를 두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키우면 다시 겹쳐질 수 있으므로 그때는 얼마정도는 잘라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오디를 수확할 수 있다.

오디 뽕나무의 병충해 방제

오디를 재배하는 뽕밭에서 문제가 되는 해충은 뽕나무이가 있으며, 병은 균핵병이 있다.

□ 뽕나무이

애벌레는 잎 뒷면에 모여 살면서 즙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잎은 오그라 들며 5월 하순경에 흰 분비물이 뽕잎과 오디를 덮어 가치가 떨어진다. 또한 작업에 어려움이 많으며 분비물이 몸에 닿음느 가려운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1년에 1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잡초 같은데서 겨울을 난다. 암컷은 5월 초순부터 가지의 어린 잎에 10~50개씩 200~300개의 알을 낳으며 산란 후 2주일이면 부화된다. 산간지나 밀식 등으로 통풍이 잘 안되고 음습한 뽕밭에 발생이 많다.

뽕밭의 통풍과 일조를 좋게 해주며, 발생초기에 피해 잎을 따낸다.

이른 봄 겨울 눈이 틀 무렵 DDVP유제, 디프수화제등 1,000배액을 잎의 앞뒷면과 뽕나무 주변에 있는 잡초 등에도 충분히 살포하여 월동성충을 방제한다.

□ 오디 균핵병

오디균핵병은 일종의 곰팡이 병으로 오디에만 전염된다. 이 병에 걸리면 오디가 익어도 회백색을 띠고, 작고 딱딱하다. 전혀 먹을 수 없고, 한 번 걸린 밭에서는 매년 반복해서 생긴다. 병에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위주로 방제하여야 한다.

○ 발생하기 쉬운 조건

가) 병에 약한 품종을 심었을 때

- 과상2호, 대성뽕, 대자뽕 등은 비교적 약함
- 청일뽕, 수원뽕, 수성뽕 등은 보통

나) 통풍이 잘 안될 때

- 밀식을 하거나 가지가 무성하게 자랐을 때
- 뽕밭이 산에 가로막히거나 주위에 통풍을 방해하는 조건이 있을 때

다) 뽕나무 눈이 트고 잎이 날 때 습기가 유지되어 자낭반(버섯)형성이 잘 될 때

- 눈 틀 무렵 전후하여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유지되기 쉬울 때
- 떨어진 뽕잎 등을 치우지 않은 곳
- 꽃이 필 때 저온이 유지되어 습도가 높을 때(일교차가 심할 때)
- 그늘진 곳,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 등
- 뽕밭주위에 호수나 하천이 있어 습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

라) 피해를 줄이는 방법

- 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습지역은 심지 않는다.

○ 피해를 줄이는 방법

가) 병이 발생하기 쉬운 발생상습지역에는 약한 품종을 심지 않는다.

나) 방제 약제살포

- 눈이 트고 잎이 피는 시기에 맞추어 (4월 중하순-5월 상순)방제약제인 지오판수화제(톱신엠) 또는 지오판.리프졸수화제(굿타임)를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나무와 뽕밭에 고르게 뿌려준다.

□ 오디가 맺은 이후에는 약제 살포 효과가 없고, 오디에 묻은 약제는 제거될 수 없으므로, 절대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 재배에 의한 피해경감
-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지역에 심는다.
- 밀식하지 말고, 전지, 전정을 잘 하여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라) 친환경 방제법
- 3월 중하순까지 시비를 겸하여 퇴비와 석회를 뿌리고 경운하여(로터리)해주면 , 오디균핵(병든 오디)이 땅속에 묻히고, 석회 자체에도 살균력이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석회 살포량은 300평당 300kg이 적당하다.

마)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
- 이른 봄에 작년에 전지한 가지나 잎, 그리고 병이든 가지를 모아서 태우든지 해서 병해충의 서식지를 없애준다.
- 봄에 일찍 황토유황, 석회유황합제, 기계유 유제 등을 뿌려준다.
- 석회보르도액(6-6식)을 잎이 나기 전에 나무전체와 땅바닥에 골고루 뿌린다.
- 잎이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석회보르도액을 뿌려준다.
- 다음에 하는 것은 톱신이나, 굿타임 등을 뿌려준다.
- 석회보르도액, 황토유황, 기계유 유제 등은 친환경 자재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뽕나무에 퇴비 주는 방법

1. 오디를 재배하던, 뽕잎을 수확하던 뽕나무 잎과 오디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영양분을 많이 주는 것이 좋다.,
   뽕나무가 다른 작물과 다른 점은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잘 자라게 하면 된다. 다른 작물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워낙 많은 오디가 달리므로 비료가 많아 너무 빨리 자란다 하더라도 결실하고 익는 데에는 어떤 문제도 없으므로 장애를 받으면 곤란하지만 연중 잘 자라도록 영양분과 수분의 보급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곳에 심고 계속 영양분은 주는 것이 좋다.

(밑거름) 심기 전에 발효가 잘 된 퇴비(돈분, 우분, 계분 등)와 부산물 을 많이 넣어주고 로타리 한 후 심는 것이 좋다.

(웃거름) 심은 후 나무가 자라면서 필요한 양분을 주면 잘 자라게 된다.
돈분 등을 비롯해서 퇴비를 수 회에 걸쳐서 주면 좋다. 토양전면에 뿌려준다.

적당히 발효가 잘 된 퇴비가 많이 있으면 봄에 싹이 트기 전에 골고루 토양전면에 뿌려주고(2,000kg/300평) 생육 중에도 월 1~2회 정도 적당한 량의 퇴비를 골고루 살포해 주어서 잘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뽕나무 재배의 대부분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어 뿌리가 상하면 곤란하므로 적당히 주는 것이 좋으며 4월부터 9월까지 토양 전면에 수회에 걸쳐 주어도 된다. 양분이 엄청나게 많은 퇴비더미위에 뽕나무를 기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흙과 퇴비가 반 반 정도씩 섞인 곳이 좋다(그만큼 비옥한 곳이면 더 잘 자란다).

은행나무의 관리요령

□ 은행나무를 길러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다른 과일나무 기르는 것과 같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은행을 많이 수확하는 지름길이다.
은행나무도 뽕나무처럼 열매 달리는 것 상관하지 않고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이 은행의 성공열쇠이다. 은행나무는 수명이 무척 길고 오랫동안 수확하므로 어른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루해 하는데 크게 되는 나무나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나지 않고 오랫동안 차근차근 훗날을 위한 준비를 한다.

□ 열매가 달리기 전에 무조건 키우는 것이 상책이다.
은행의 결실은 한 번 달렸던 곳에 매년 달릴 수 있는 다른 나무가 가지지 못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전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자라는 대로 그대로 키워도 되는 작물이다.
은행나무의 특성상 초기 생육이 상당히 늦고 또한 좋은 조건을 갖추어 주어도 어떤 나무보다도 늦게 자라는 나무로 수백년 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열매가 빨리 달리는 것은 조건이 나빠서 후손을 증식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잘 기르지 못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 잘 자라도록 무조건 좋은 땅에서 기르는 것이 좋고 계속 영양분을 보급하는 것이 좋다.
열매를 빨리 수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무를 빨리 키우는 것이 은행나무 키우는 요령이다.

□ 저희가 보급한 등구랑 은행나무, 금자탑 은행나무는 퇴비를 비롯한 복합비료를 연간 수회에 걸쳐서 어느 정도 자라면 전면에 비료를 살포한다. 비료를 많이 주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게 주어 잘 자라지 못한다. 은행나무는 뽕나무보다도 훨씬 재배방법은 간단하나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 후손을 복되게 하는 나무로 오랫동안 정성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는 것으로 너무 초조해 하거나 달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타까워 할 일도 없다.

□ 그저 심어만 놓고 잘 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수없이 많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 땅이 나쁜 곳에는 가급적 심지 말고 좋은 곳에 심는 것이 좋다.

□ 조밀하게 심어 관리하다가 나중에 옮겨 심어도 된다.
잘 자라지 않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넓게 심으면 관리면적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1.5m x 1.5m정도로 심어 몇 년 후에 옮겨 심으면 된다.

분양할 묘목의 상태와 가격

금자탑 은행나무	:	2m ~ 2.5m이상	: 20,000원	고접을 붙여 3년
		1.5m이상	: 10,000원	고접 3년

감나무 등시, 대봉의 관리요령

□ 등시, 대봉 재배요령

○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 심어 자라다가 죽는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감나무는 물에 약한 것 같다.
애초에 심을 때에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다

○ 감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가 토질이 어느 정도는 비옥하든지 양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척박한 곳에 심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 기상환경의 불량으로 자연 재해가 많을 수 있다.
작년에 갑자기 날이 추워 달려 있는 감이 얼어 못쓰게 된 경우가 있었다.

○ 단감처럼 재배하여 낮게 키우면서 전지를 제대로 하여 적과를 하든지 열매를 솎아 큰 열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병충해 방제 철저

○ 감의 수확시기에 갑자기 추워 감이 얼어 못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매실

매실이 근래 갑자기 많이 심겨 홍수출하 때문에 문제가 많다.
작년 오디 판매 때문에 가락동 도매시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매실의 유통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
매실의 크기가 큰 것이 가격이 대체로 높으므로 큰 매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과일처럼 열매를 솎아 열매의 숫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무조건 많이 달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가능하면 큰 열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매실의 용도가 많은데 무조건 덜 익어서 따는 것보다 맛이 있고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익혀서 수확하여 복숭아처럼 유통 시킬 필요가 있다.
전지를 잘 하여 병충해의 발생을 줄이고, 좋은 품질의 매실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 재배한 작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작물을 잘 가꾸고 수확을 많이 올리는지 그 해결답안을 마련한다.

○ 심은 작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좋다.(예를 들어 비료가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아니면 병충해방제를 원하는지 등)

○ 열매가 잘 달리고 상품성이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지 방법은?

○ 크고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매를 솎아줘야 하는지 등

○ 재배하는 작물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수집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발품을 많이 팔고 책을 사서 공부를 하라(토양, 비료, 농약, 작물생리 등)

한울영농조합의 묘목 분양가격표

종류	구분	판매가	비고
한울2호	접1년 특	5,000원	오디전용, 밀식재배
	접1년 상	3,000원	
수원뽕나무	접1년 특	5,000원	오디전용, 밀식재배
	접1년 상	3,000원	
청일뽕나무	접1년 특	5,000원	오디,뽕잎겸용, 소식재배
	접1년 상	3,000원	
금자탑은행나무(직립은행)	고접3년생	20,000원	높이 2m 이상 (열매수확용)
		10,000원	높이1.5m 이상 (열매수확용)
	저접 2년	5,000원	50cm 이상 저접묘 2년생 암나무
수퍼청매실	접1년 상	5,000원	청매실로 열매가 크고 숙기가 늦어 서리피해를 줄일 수 있음
	접1년 중	3,000원	
대왕매실	접1년 상	5,000원	가장 큰 품종, 장아찌, 엑기스용
	접1년 중	3,000원	
남고, 화양실	접1년 상	3,000원	남고(청매), 화양실(홍매)
슈퍼왕대추	접1년 특	7,000원	일반토종에 비해 3배 이상 큼
	접1년 상	5,000원	
복조대추	접1년 특	4,000원	건과용으로 가장 많이 심겨진 품종(심은 다음해부터 결실)
	접1년 상	3,000원	
둥시	접1년 특	4,000원	곶감용
	접1년 상	3,000원	
	접1년 중	2,000원	
대봉(봉옥)	접1년 특	4,000원	홍시 및 곶감용
	접1년 상	3,000원	
	접1년 중	2,000원	
블루베리	삽2년 특	15,000원	스파르탄, 듀크, 블루제이,노스랜등 등 하이부쉬계통
	삽2년 상	10,000원	
체리(선발좌등금,나폴레온, 향하금)	접1년 특	15,000원	콜트대목에 접목 식재 후 2~3년후부터 결실
	접1년 상	10,000원	
바이오체리	접1년 상	5,000원	서양자두와 체리의 교배종으로당도는 13도, 과중 20g 정도
	접1년 중	3,000원	
접목왕호도	접1년 상	15,000원	한정수량
실생호도	실1년 특	7,000원	신령호두를 파종한 것으로 일반호두보다 과실이 크다.
	실1년 상	5,000원	
슈퍼왕석류	삽2년 상	5,000원	꺾꽂이2년, 평균과중 450~1,000g
	삽2년 중	3,000원	
대왕살구(난주대실)	접1년 상	5,000원	살구중 가장 크고, 당도가 높은 품종
	접1년 중	3,000원	
밤나무(옥광, 대보)	접1년 상	3,000원	맛이 좋으나 작다(옥광), 당도가 높고 큼(대보)
	접1년 중	2,000원	
헛개나무	실생 1년	500~800원	
엄나무	실생 2년	1,000~3,000원	

두릅나무	분주1년	1,000~2,000원	
참옻나무	실생 1년	800~1,000원	
꾸지뽕나무	접1년 상	15,000원	가시가 없는 암나무
	실1년 상	1,000~2,000원	암.수 불구별
참죽나무	실생1년	800~1,200원	
산초나무	실생1년	800~1,000원	암.수모름, 가시있음
초피나무	접3년 상	10,000원	가시없는 암나무
오미자	실생1년	800원	문경과 동일
복분자	분주1년	500원	교창의 것과 동일
구기자	분주1년	1,500원	
토종오가피	실생1년	1,000원	
산수유	실생1년 상	800원	

△ 시세는 변동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수종의 특성

1. 오디를 수확하는 뽕나무 (유망 추천수종)

앞으로 유망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으로 가장 주력하는 상품

(1) 한울 2호 : 심은 후 1년 후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것으로 열매가 상당히 큰(3~5g)품종으로 당도는 중간 정도(13~15도)이며, 열매가 단단하여 생과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품종이다. 수원뽕에 비해 일주일 정도 늦게 수확이 시작되고 추위에 다소 약해 아주 추운 곳에서는 심지 않는 것이 좋다. 잎은 둥근모양이고 마디마디 열매가 달리는 다수확품종으로 귀가 질겨 잘 익어야 떨어지므로 오디의 품질을 높여 생과용으로 판매할 때 상당히 우수한 품종이다. 식재간격은 3m x 1.5m로 300평당 200주정도이다. 매년 수확 후 전지하여 햇가지를 만들어 다음해에 수확한다(수원뽕도 마찬가지이다).

(2) 수원뽕나무 : 식재 후 2년 후부터 결실되는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여 전국 재배가 가능하다. 열매는 대과종이며 열매수확시기가 상당히 빠른 품종으로 잎이 두텁고 줄기가 흰색으로 마디사이가 상당히 짧은 품종이다. 2002년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조사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의 무게는 3.58g로 중대과형이고, 오디색은 흑색이다.
2) 오디의 당도는 15.7%(Brix)로 청일뽕의 17.0%보다는 낮았다.
3) 오디의 숙기는 중숙성이고, 착과정도는 청일뽕과 같이 많았다.

(3) 청일뽕나무 : 오디가 잘 달리지 않아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정확한 품종의 청일뽕은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추위에도 강하여 어디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열매는 다소 적으나 많이 달려 수확량도 적은 편이 아니다. 옛날의 오디 따먹던 맛있는 오디는 모두 청일뽕 계통이다.

큰 나무로 만들어 수 십년~수 백년 키울 수 있는 나무로 전지를 하지 않고 자유방임의 형

태로 키울 수 있다. 익으면 잘 떨어지는 품종으로 맛이나 향이 다른 것에 비하여 좋으며 병충해에도 강한편이다. 식재간격은6m x6m로 300평에 30주 정도 심는 것이 좋다.
본 조합에서 정확한 품종의 청일뽕을 늘린 것으로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니다.

2. 은행나무 금자탑

곧게 자라는 접을 붙인 은행나무로 이 세상에는 하나 밖에 없는 품종이다.
은행을 수확하는 암나무로 만든 것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 만든 것으로 묘목 생산에 있어서 은행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것이 없다.
대부분 생산은 농민이 하고 판매는 다른 곳에서 하여 나무의 특성을 모르고 재배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① 은행나무는 접을 붙이면 모두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곧게 자라는 접목 은행나무는 본 농원 외에는 없다.
② 은행나무는 특성상 한 번 달릴 곳에서는 영원히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전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무이다(청일뽕과 비슷하다).
③ 나무가 크면 클수록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은행나무의 성공요인이다.
④ 나무가 작을 때부터 은행열매가 달리면 무조건 실패한 것이다.
⑤ 다른 나무는 열매가 달리면서도 나무가 그런대로 자라지만 작은 은행나무에 달리면 열매는 조금 수확을 하였지만 나무를 자라게 하지 못해 결국은 캐내야 하는 것이다.
⑥ 위의 것을 보았을 때 은행나무는 무조건 잘 자라게 하여 큰 나무로 빨리 만들고 열매는 가능하면 늦게 수확하면 성공한 것이다.
⑦ 수 백년 사용하는 은행나무는 생산을 하면서도 큰 무리 없이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⑧ 은행나무보다 늦게 자라는 과일나무는 없다. 가장 성장이 늦은 은행나무도 비옥한 곳에 심어 관리를 잘하면 잘 자라는 편이다.
⑨ 땅이 나쁜 곳에 심을 경우는 조건이 좋은 곳에서 길러 어느 정도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옮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은행나무를 옮겨 심을 곳은 엄청난 퇴비를 주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면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⑩ 배수가 잘되고 비옥한 곳을 선정하여 심는 것이 좋다.
⑪ 금자탑 은행나무는 지주를 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곧게 자라므로 다른 접목묘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
⑫ 성장이 다른 접붙인 나무에 비해 훨씬 빠르다.(정아우세성의 법칙)
⑬ 곧게 자라면서 스스로 옆가지를 만들어 수형이 가로수와 같은 형태로 자라므로 수백년 동안 그대로 길러도 된다.
⑭ 열매가 늦게 달리고 성장도 늦어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은행만큼 큰 가치를 가진 나무도 많지 않다.
⑮ 후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무 중의 하나로 손자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공손수라고도 부른다.
⑯ 농약은 평생 한번도 치지 않아도 되는 나무는 은행 외에는 없다.
⑰ 은행은 은행잎이 달리는 곳에서는 열매가 달리므로 무조건 큰 나무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방법이므로 비옥한 곳에 조밀하게 심어 기르는 것이 좋다.

⑱ 성장이 매우 느린 편이므로 가능하면 비옥한 곳에 심고, 봄부터 가을까지 비옥하든, 척박하든 생육 중에 영양분을 자주 주어야 한다.

⑱ 금자탑은행나무는 비스듬히 자라는 나무보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른 나무에 비해 엄청나게 잇점을 많이 볼 수 있다(수확량이 훨씬 많고, 나무 모양이 훨씬 좋고, 더 빨리 자라고, 크게 키울 확률이 훨씬 높고, 당연히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⑲ 은행나무 등구랑을 수년간 늘려오면서 어떻게 하면 곧게 자라는 나무를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원줄기를 가지고 접을 붙이면 되는 것을 발견하여 오랫동안 자체 선발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금자탑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고 있다.

⑳ 은행수확을 목적으로 심을 때에는 금자탑을 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므로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반드시 금자탑을 심어 잘 가꾸는 일이다.

3. 매실

(1) 슈퍼청매실,

보통의 청매실에 비하여 열매가 훨씬 크고(7~9g). 향이 좋고, 녹색을 띄는 품종이며 개화기가 다른 매실보다 3~5일 늦어 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품종이다.

(2) 대왕매실

매실 중에서 과중이 가장 많이 나가고, 성장이 다른 매실에 비해서 매우 좋다. 과육이 많아서 장아찌용, 매실엑기스용으로 좋다.

4. 슈퍼 왕대추

일반 토종에 비하여 과실이 3배 이상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건과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수확량이 많고 당도도 높아 생과용으로 좋다.

5.감나무

(1) 둥시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에서 재배되는 곶감 생산용품종이다.

감 중에서는 가장 추위에 강한 편이다. 숙기는 10월 중하순이며 평균과중은 250g 정도이다.

(2) 대봉

홍시를 만드는 대표적인 품종으로 과실이 상당히 큰 편이다.

나무의 세력이 왕성하고 잎을 타원형이며, 윤기가 난다.

10월 중순이면 수확할 수 있고, 과중은 350g 정도이며 당도는 18~20도

6.체리(양앵두)

앞으로 유망한 과수재배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시작은 벌써 하였으나 재배하는 사람이 적어 아직도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블루베리처럼 선진 과일생산국

에서는 대량생산하여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적어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상당히 비싼 과일로 자리를 점차 잡아가고 있다. 워낙 품종이 많고 재배기술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하였으나 이제는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다. 가장 비싼 과일로 블루베리와 체리를 꼽고 있으며 20세기 꿈의 과일이라 불리며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소비가 되는 고급과일이다. 본 농원에서는 오디를 생산하는 뽕나무와 더불어 주력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결실이 잘 되고 빨리 수확을 시작할 수 있는 콜트대목에 접목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사과의 왜성대목(M-26, M-9, T-337)에 품종을 만든 것처럼 왜성대목에 접을 붙이면 조기 결실이 가능하고 품질이 우수하다. 선발 좌등금을 비롯한 몇 가지를 함께 심어야 결실이 잘 된다. 체리를 주력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오디처럼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터득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7. 꾸지뽕나무

암.수 다른 나무로 근래 많은 분들이 심으나 대량으로 심는 것은 어느 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심기는 많이 하고 판매는 잘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래 암을 예방하고, 당뇨를 비롯한 성인병에 좋다하여 많이 심고 있다. 가시가 없는 접을 붙인 암나무를 분양한다. 병에 강하고 생육도 뽕나무처럼 아주 빠르므로 청일뽕나무처럼 넓게 심어야 한다.

8. 블루베리

역사가 무척 깊은 블루베리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는 체리(양앵두)처럼 오래 되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근래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수많은 실패사례를 거쳐 정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성과를 올리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성과가 낮은 편에 속한다. 워낙 품종이 많아 어떤 종류의 것을 재배해야 하는지 등 공부할 것이 많은데 본 조합도 올해부터 수년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 현재 현대백화점 등이 납품하는 분과 함께 블루베리 사업에 진출하여 올 가을부터는 묘목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술지도와 묘목 분양을 할 것이다. 현재 보급하는 블루베리는 하이부쉬계통으로 어디서나 기를 수 있는 품종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품종별로 몇 주 씩이라도 심어 배우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분에 심어도 되는 것으로 도시에서도 기를 수 있으며 울타리나 정원에 심어도 된다.

□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무엇을 하면 오랫동안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과연 재배를 잘 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믿을만한 품종인지, 상품성이 좋은 품종인지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성공하는 길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부한다.
⑤ 선택한 작물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성공사례만 보지 말고 실패한 곳도 찾아다녀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⑥ 생산에 앞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워낙 많이 빨리 변하므로 정보의 진실성을 검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 오디를 생산하는 뽕나무는 본 농원이 가장 확실한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배기술도 가지고 있음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뽕나무 재배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대한민국 오디산업의 선구자로 우리 농촌을 살리는 효자산업으로 반드시 오디를 포함한 뽕나무 관련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품종을 개발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본 조합은 오디산업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최고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의 오디를 생산하는 품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울 2호, 수원뽕, 청일뽕은 저희 한울이 보증하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확실한 품종입니다. 안정적인 생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디재배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디재배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어떻게 재배해야 하는지, 전지는 어떻게 하는지, 수확을 어떻게 하고, 어디로 어떻게 판매되는지 등의 교육을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2시간 정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 많은 종류의 신품종이 나와서 어느 것이 좋은지, 재배하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포장을 만들고 기술도 터득하여 몇 가지 종류는 주력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종자, 종묘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생산한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에게 바로 갈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산지에서 생산한 것이 제값을 받아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작년부터, 오디, 오미자, 복분자, 고구마, 옥수수, 곶감 등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과 경동시장, 강서시장 등에 오디와 복분자, 오미자를 출하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살 곳이 없고, 생산자는 팔 곳이 있어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 한울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떠한 일도 못합니다. 함께 뭉치는 일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술이 있으면 공유하고, 대량판매는 반드시 양이 있어야 하므로 생산을 공동으로 하기는 힘이 드나, 판매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듣고 특별한 농산물을 잘 파는 유통조직으로 거듭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1년 3월 한울영농조합법인 대표 **천상배 드림**

경북 상주시 만산동 307-1 www. hanwool.co.kr

054-536-3324~5, 054-535-7802.

계좌번호 (농협 743013-51-066305 영농조합법인 한울뽕나무)

영농조합법인 한울뽕나무

오디뽕나무 재배교육안내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소 : 본 조합사무실에서
내용 : 오디재배에 대한 전번적인 교육(품종, 잘 가꾸는 법, 심을 때 유의사항, 전지하는 방법 . 오디의 판매에 대한 것 등)

오디재배를 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공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오디재배는 현재는 초기단계로 아직 큰 시장이 되고 성과를 얻으려면 아직도 넘어야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할 것이 없다고 너무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 농원에 한번 오셔서 한 번 보시는 것만해도 오디재배의 반은 배운 것입니다. 먼저 뽕나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배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뽕나무를 심으시려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디뽕나무 심는 것이 확실한 농가의 수익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심어서 오랫동안 수확하는 뽕나무는 처음부터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우수한 품종을 심어 잘 가꾸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작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저희 한울영농조합에서 자신있게 권장하는 오디뽕나무로 밝은 미래를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풍년농사 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울영농조합 천상배 드림

주소 : 경북 상주시 만산동 307-1
전화 : 054-536-3324~5, 011-9598-7801

홈페이지 : hanwool.co.kr